

마르코 복음 10과 참조

말씀 새기기 2번

시편 22장

- 1 [지휘자에게.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시편. 다윗]
2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3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4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5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였기에 당신께서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6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7 그러나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썃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8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비웃고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어 뱀니다.
9 "주님께 맡겼으니 그분께서 그자를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그분께서 구해 내시겠지."
10 그러나 당신은 저를 어머니 배 속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 젖가슴에 저를 평화로이 안겨 주신 분.
11 저는 모태에서부터 당신께 맡겨졌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12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다가오는데 도와줄 이 없습니다.
13 수많은 수소들이 저를 에워싸고 바산의 황소들이 저를 둘러싸
14 약탈하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저를 향하여 입을 벌립니다.
15 저는 물처럼 옆질러지고 제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제 마음은 밀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16 저의 힘은 웅기 조각처럼 마르고 저의 혀는 입속에 들러붙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죽음의 흠에 앉히셨습니다.
17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저를 둘러싸 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18 제 뼈는 날날이 셀 수 있게 되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며 좋아라 합니다.
19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20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21 저의 생명을 칼에서, 저의 목숨을 개들의 발에서 구하소서.
22 사자의 입에서, 들소들의 뿔에서 저를 살려 내소서. 당신께서는 저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3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24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25 그분께서는 가련한 이의 가엾음을 업신여기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시고 그에게서 당신 얼굴을 감추지도 않으시며 그가 당신께 도움 청할 때 들어 주신다.
26 큰 모임에서 드리는 나의 찬양도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니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27 가난한 이들은 배불리 먹고 그분을 찾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리라. 너희 마음 길이 살리라!
28 세상 끝이 모두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고 민족들의 모든 가문이 그분 앞에 경배하리니
29 주님께 왕관이 있고 민족들의 지배자시기 때문이다.
30 세상의 모든 권세가들이 오직 그분께 경배하고 흠으로 내려가는 모든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내 영혼은 그분을 위하여 살고
31 후손은 그분을 섬기리라. 장차 올 세대에게 주님의 이야기가 전해져
32 그들은 태어날 백성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알리리니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말씀새기기 4번

(마태 27,57-61)

문하시다

- 57 저녁때가 되자 아리마태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59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60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
61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루카 23,50-56)

묻히시다

- 50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 51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태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 53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 54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 55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 56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요한 19,38-42)

묻히시다 (마태 27,57-61) ; (마르 15,42-47) ; (루카 23,50-56)

- 38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 39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 40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 4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 42 그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